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리더의 덕목에 관한 연구

A Study about Leader's virtue in the Epistle of James

전영수*

황인태**

<요약>

본 연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리더십의 유형을 고찰하였다. 현대사회는 오늘과 내일이 다 르게 변화무쌍하게 달음질을 치고 있다. 유행하는 문화와 교통과 통신의 수단은 물론 정보 미디어 시장이 날로 변화되어 새로운 스타일로 소비자 고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인간의 심성은 날로 메달라가고 현대 휴대용 전자기에만 의존하게 됨으로 나 홀로 인생으로 되어가고 있다. 자신만의 개인주의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인의 생활은 정신적으로나 시간의 여유가 없이 조급하고 무엇인가에 쫓기는 생활이 반복되고 있다. 정서적인 메마름과 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들의 자살률이 증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먼저는 경제문제와 가족들과의 사랑의 결핍이 아닌가 생각된다. 인간의 삶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제문제가 열악하다 할찌라도 가족의 사랑과 종교적인 온전한 신앙이 있으면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내용으로서 제1장 서론에서는 문제의 제기와 리더십에 관한 문제를 논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리더십의 개념과 시대적인 변천과정에 대하여 그리고 리더의 덕목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야고보서가 어떤 성경인가를 소개하였다. 제4장에서는 야고보서에 나타난 리더의 덕목에 관하여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고찰하였으며, 제5장은 결론 부분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논하였다.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리더의 기본적인 덕목을 고찰하면서 연구자가 논하는 내용은 리더로서의 인내하는 덕목, 언어사용의 덕목, 지혜자로서의 덕목, 겸손의 덕목, 재물관리의 덕목에 관한 연구이다. 조직사회에서 누구나 자신이 먼저 인내하고, 예의 바르고 온전한 언어생활을 통하여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하며, 지혜로운 사고력과 겸손한 자세, 특히 경제생활에 있어서 재물관리를 잘 할 수 있는 훌륭한 리더십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조직구성원간의 밝고 긍정적이며 신뢰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이 있음을 밝힌다.

주제어 : 리더의 덕목, 인내, 언어, 지혜, 겸손, 재물관리

* 주저자, 전북대학교(경영학박사 수료), 솔로몬경영연구소장, ysjames0427@naver.com

** 교신저자, 협성대학교(금융보험학과 교수), ithwang@uhs.ac.kr

I. 서론

현대사회는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 변화무쌍(變化無雙)하게 달음질을 치고 있다. 유행하는 문화와 교통과 통신의 수단은 물론 정보미디어 시장이 날로 변화되어 새로운 스타일로 소비자 고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인문학적인 기본 인간의 심성은 날로 메말라가고 현대 휴대용 전자기예만 의존하게 됨으로 나홀로 인생, 자신만의 개인주의가 더욱 팽배해져 가고 있다.

기독교의 윤리적인 문제는 기독교가 탄생하면서 시작되었던 것으로 초대교회에서도 윤리적인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당시의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당시 기록될 수 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과 저작동기 그리고 야고보서의 윤리가 등장했어야만 했던 그 당시의 윤리적 배경을 기초로, 야고보서를 통하여 야고보가 의도하였던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그 윤리적 특징과 덕목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의식을 고무시키며 기독교윤리의 한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 방향을 설정하여, 믿지 않는 비(非)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이 되고, 분이 되어,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에게로, 빛과 진리로 인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소망하는 마음이다. 과거 예전의 60-70년대 사회문화와 다르게 동료도 없고, 이웃도 없고, 선후배도 없고, 교양의식도 없고, 종교도 없는 오로지 물질만능의 시대로 전락하는 문화 풍조는 이미 고착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인의 생활은 정신적으로나 시간의 여유가 없이 조급하고 무엇인가에 쫓기는 생활이 반복되고 있다. 인간의 삶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제문제가 열악하다 할찌라도 가족의 사랑과 종교적인 온전한 신앙이 있으면,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해가 거듭할수록 경제적인 생활문제를 비롯하여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느끼는 소외감, 무기력감, 노약함, 노인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고독감과 육신의 고통에서 힘들어 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문제이며, 국가차원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상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야고보서에서 나타나는 리더십유형의 연구를 통해 평안과 안정된 심신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독교의 경전(經典)이며 세계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성경(Bible)은 일찌기 지구촌의 수많은 민족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인생교과서로 경독(敬讀)하고 있다. 일반 기독교인들을 비롯하여 사회과학자, 인문학자와 신학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 바클레이(Barclay, 문경식 역, 1976: 7)는 자신의 저서 주석서 ‘야고보와 베드로의 서간들(The Letters of James and Peter)’의 머리말에서 “야고보서를 처음 읽는 사람은 이 책이 신약성서 가운데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나는 야고보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짧은 서신이 위대한 서간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간 안에서 삶의 길잡이가 될 만한 아름다운 격언들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신약성경에서 공동서신으로 분류된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리더십의 영적인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영성의 리더십이 필요한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조직사회에서 누구나 자신이 먼저 인내하고, 언어생활을 통하여 건전한 소통을 하며, 지혜로운 생활과 겸손한 자세와 재물관리를 잘 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리더의 품격있는덕목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조직구성원간의 밝고 긍정적이며 신뢰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구자의 연구목적과 필요성이 있음을 밝힌다.

II. 야고보서는 어떤 성경인가?

2.1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

야고보서의 내용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서 저작동기를 규명하기가 어렵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중요한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야고보가 관심을 보였던 것은 당시 교회의 신자들 사이에 상당한 빈부의 격차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1:9, 2:5-7), 장사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4:12-5:6), 그 생활수준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풍조가 생긴 것이었다(2:1-4). 이러한 상황에서 신자들이 사회의 세속적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위험성이 컸으므로 야고보는 신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며 순수한 신앙심과 겸손한 태도를 강조했다(1:27, 3:13-18)(한금석, 1990: 42). 둘째, 야고보는 관념적 신앙생활을 경계하고 실천을 강력히 요구한다.

신앙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유로서 선행 혹은 행위적 실천을 소홀히 하려는 사람들을 반박하기 위해 야고보는 2:14-26에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1:22-27, 3:13). 따라서 그는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신앙태도를 강하게 경고하고(1:19-25, 3:13),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도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1:26, 3:1-12, 4:11-12).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보다도 먼저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구체적인 배려였다(1:27, 2:15-25).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야고보는 구약에서 사회정의를 부르짖고 있는 예언자들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야고보서가 신자들 상호간의 화목한 생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면 그가 훈계를 하고자 하는 교회공동체 안에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야고보서는 산상수훈과 같이 유대교의 지혜문학에 속하여 윤리적인 행함을 다루고 있다(Baker, 2002: 51).¹⁾ 야고보서의 윤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함으로 성숙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야고보서는 역사상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 없이 많은 논란으로 이어져 왔다. 야고보서가 정경(Canon)으로 인정받는 과정도 어려웠지만 정경으로 확정된 후에도 계속적인 보류와 의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종교 개혁시기에 마틴 루터(M. Luther, 1522)는 1522년에 번역된 신약성서 서문에 야고보서를 가리켜 ‘지푸라기의 서신’ 이라고 신약성서 가운데 가장 가치 없는 서신으로 평가하였다. 그 이후 19세기까지도 야고보서의 고유한 신학적 가치는 많은 경우 무시되거나, 바울신학에 대조되어 복음적 가치가 떨어지는 저급한 기독교의 산물로 일축되어 왔다. 그 이유는 야고보서를 유대교의 한 부류로 일축하여, 믿음을 도외시한 채 ‘행위’ 만을 강조한다고 이해하였고, 그리고 바울의 ‘칭의’ 사상과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야고보서의 주제가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와 야고보서의 구성 역사와 관련된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면서 야고보서의 신학과 바울의 신학, 특히 칭의와 관련된 이들 신학의 조화성에 집중되고 있다.

그 결과 야고보서의 본의(本意)를 피상적으로만 파악함으로써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였으며, 야고보서의 고유한 사상적 가치는 점차 인정을 받게 되었다. 본 서신은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A.D. 65년경에 “흩어져 있는 열 두 지파”에게 문안하는 형식으로 기록을 하였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잡기 위해 잘못된 모습을 꾸짖으며 바르게 살라고 강력하게 권하는 말씀이다. 본 서신은

1) Baker는 야고보서를 지혜문학으로 분류한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유대교적인 사상과 행습(行習)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며, 이는 믿음의 행위로서 진정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율법의 태도로 보게 된다. 고리보다는 실행방면에 치중하는 점이 있다. 믿음이 있는 자라면 행위를 부인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죽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2.2 저자 야고보의 인물소개

신약성서에 ‘야고보(James)’라는 이름은 42번 나온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막 6:3, 마 13:55)에서 소개되는 예수님의 네 명의 형제들(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중의 하나이다(유상현, 1996: 72-73). 본 서신의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지만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그 저자라고 주장하는 보수파 학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만한 이유는 없다. 예루살렘과 시리아의 교회들에서는 그 사실이 일찍부터 인정되어 왔고, 내부적인 증거가 상당히 확실시 되었으며, 본 서신 자체가 성서의 다른 구절에 의해서도 잘 알려진 야고보에 의해 쓰여진 것(행 15:13-21; 21:17-25; 갈 1:19; 2:9-10)으로 나타내고 있다(윌리엄 커, 1993: 276-277). 본 서신의 저자 ‘야고보(James)’는 다섯 명의 동명다인(同名多人) 중에서 ‘예수’의 동생(행 12:17)이자 ‘유다’의 형제(유 1:1)이며 당시 예루살렘교회의 지도자이다. 야고보는 예수님과 한 가정에서 자랐으나 야고보는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이전에는 신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이후 그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 되었고 엄격하며 절제된 삶을 살았기에 그는 ‘의로운 사람’ 야고보로 알려지게 되었다. 야고보는 ‘교회의 기둥의 하나’로서 예루살렘에서 열린 제1차 교회 회의의를 주재하였다(행 15장). 가족으로서는 ‘유다(Juda)’가 자기의 형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나타난다(유 1:1).

야고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활동한 시기는 A.D. 30년경에서부터 A.D. 62년경으로서, 이 시기는 오순절 성령강림의 사건과 함께 시작된 초대 교회의 폭발적 성장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마리아와 팔레스틴’ 그리고 ‘로마 제국’ 등으로 확산되어 가던 때이다. 또한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이전되어 가는 과도기로서의 구약과 신약의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등에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격변기였다. 또한 같은 시기에 로마 제국은 디베료 가이사(A.D. 12-37), 칼리굴라(A.D. 37-41년), 클라우디오(A.D. 41-54년)를 거쳐 네로(A.D. 54-68년)의 통치 시대를 맞고 있던 때로서 기독교에 대한 유대교의 종교적 박해에 이어 서서히 로마 제국의 정치적 박해가 가해지고 있었다(김우진, 2014: 5-6). 이러한 때에 주의 형제 야고보는 당시에 초대 교회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그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인물이었다(갈 2: 9-12). 그리고 ‘바울(Paul)’의 글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특별히 부각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야고보가 일찍이 예루살렘교회의 지도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원인은 예수의 동생이었다는 혈연적인 요인이 압도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유대교의 거점으로서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특성으로 인해서, 그 곳 주민들이 전통적인 종교관에 경도했으리라는 점은 이해가 된다. 그러한 지역에서 야고보가 가지고 있었던 보수적인 유대교 의식은 널리 호응을 받았을 것이며, 그러므로 그의 위상도 자연스럽게 굳혀질 수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III. 리더십과 리더의 덕목에 관한 제(諸) 문제

3.1 리더십의 정의

리더십은 사회적 관계에서 요구되는 능력으로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동기를 부여하여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토록 하는 영향력이다(조병남, 2013: 483-517). 1930년대 이전의 카리스마의 강압적이고 억압의 전통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더 이상 명령과 통제의 과정이 아닌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공급하고, 지치지 않도록 격려하고 배려하는 지도력을 통하여 구성원들에게 힘을 주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솔루션범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사명(mission)이 21세기가 요구하는 리더십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울프(Wolff, 1969:5-8)는 그의 저서에서 “리더란 먼저 길을 알고 솔선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오도록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여야 한다”고 정의하였다. 논자(論者)는 “리더십이란 리더가 조직구성원의 인격을 존중하며 리더의 분명한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의 목표를 자발적으로 달성시켜나가는 과정(전영수, 2007: 10)” 이라고 정의를 하였다. 클린턴(Clinton, 이순정 옮김, 2008: 293)은 “성경적 지도력에 대한 연구 결과 지도자란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구체적인 영향력으로 집단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발휘하는 리더와 조직구성원들이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영향력을 소통하며 나가는 과정이다.

3.2 리더십의 시대별 변천과정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는 리더십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리더십은 사회적 관계에서 요구되어 지는 능력으로 조직구성원들에게 자발적 참여와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영향력이다. 합법적으로 조직된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명령과 통제를 하는 리더십은 이미 과거의 시대적 유물이 되었다. 조직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영감을 유발시키는 솔루션범의 과정(process)을 끊임 없이 수행해야 한다. 리더십의 변천과정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전통적 리더십 이론으로서 특성이론과 행동이론 및 상황이론이 있으며, 특별히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경영학 및 인접과학 학문분야의 발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발전해 왔다(황인태, 2014: 9). 리더십의 특성이론은 리더와 리더가 아닌 조직구성원들을 구분시켜 조직구성원들을 과학적 관리의 대상으로 연구한 과학적 관리법과 함께 연구가 전개되어 왔으며, 행동이론은 효율적인 리더와 비효율적인 리더의 관찰이 가능하며, 개발이 가능한 행동으로 조사된 행동주의 인간 관계론과 함께 연구가 전개되어 왔다. 그리고 상황이론은 리더십의 유효성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경영학의 상황 적합적 이론과 함께 연구가 전개되어 왔다. 특히 1960년대로 들어와서는 새로운 신경향 리더십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적 리더십, 비전 제시형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문화적 리더십, 자기희생적 리더십 등으로 다양한 명칭으로 제시되면서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변천하고 있다.

독일의 경영학자인 Staehle는 경영의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구조화와 조정이며, 다른 하나는 권력유지와 정당성 확보이다. 후자가 경영자의 지배형태와 관련된 것이라면, 전자는 경영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임무와 관련된 것이다. 구조화 작업이 경영자의 비상시적인 임무에 해당되는 것인 반면에, 조정의 기능은 경영자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상시적인 임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업조직의 기본적인 기능인 투입, 변형, 산출 기능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임무이다. 특별히 서로 다른 행동양식을 취하고 있는 조직구성원들의 차이를 조정하며 성과를 달성해 나가는 작업은 경영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카포우스키(Capowski, 1994)는 경영자와 리더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1> 경영자(Manager) & 리더(Leader)

경영자(Manager)	리더(Leader)
관리적이다	혁신적이다
유지 및 통제	개발 및 영감
단기전망	장기전망
어떻게, 언제	무엇을, 왜
모방적	창조적
환경수용	환경에 도전, 극복
지위의 권한에 의한 힘	개인적 특성에 의한 힘

*자료출처: 조병남 (2013). “세계 요한의 리더십 연구.” 『신학과 실천』, 489. *論者: 채구성

위의 <표 1>에 제시되어 있듯이 경영이 주어진 환경하에서 효율성의 극대화 방안을 추구하는 관리의 기능이라면, 이에 비해 리더십은 주어진 틀의 제약을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여 힘을 키워내는 창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경영자의 능력이 지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힘(position power)이라면, 이에 비해 리더의 능력은 개인적인 특성(personal power)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21세기의 리더십을 영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되어진 기업환경의 변화는 일방적 지시와 통제보다 공감과 참여를 통한 조직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경영자 역시 구성원들과의 활발한 상호교류를 바탕으로 하여 변화를 주고, 영감을 주며,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영향력을 주는 리더십을 갖추어야만 하는 시대로 변화되었다.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계획하고 조직하고 통제하는 경영의 기본 임무도 중요하지만 변화된 경영환경에서 리더십을 갖추고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경영자의 핵심임무가 되었다(Dubrin, 2001: 332-335).

리더십 패러다임의 전환은 학자별로 다양하지만, 21세기 리더십에 요구되는 몇 가지 중요한 정의들을 정리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해 내는 지도력이다. 리더십은 추종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을 때 발휘되는데, 리더십이 뛰어나도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리더라 할 수 없다. 리더십은 성과의 실현을 통해서 평가되는데, 훌륭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도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성공적인 리더라 할 수 없다. 리더십은 지위, 계급 또는 특권이 아니라 하나

의 책임이다.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리더십은 조직 및 사회 각 부문에서 발휘될 수 있는 능력이다 (Drucker, 2001). 현대사회는 원시시대 또는 농경문화 시대의 단순한 리더십으로 이끌어 가는 시대가 아니다. 그러므로 리더십이란 수학공식이나 물리학 공식처럼 변함이 없는 고정된 개념으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시대적인 감각과 사회문화의 정서와 변천에 따라서 리더십의 개념은 다르게 변화 발전되어야 한다. 즉 정치적인 환경, 경제적인 환경, 문화적인 환경, 지식적인 환경, 종교적인 환경 여러 가지의 요인의 영향이 배후에 깔려 있기 때문에 리더십은 항상 고차원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영역이다. 리더십 전문가인 맥스웰(Maxwell, 2003)은 리더를 보스(Boss)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표 2> 보스(Boss) & 리더(Leader)

보스(Boss)	리더(Leader)
직원을 부린다	그들을 리드한다
권위에 의존한다	선언에 의존한다
공포와 두려움을 조성한다	열정을 일으킨다(동기부여)
‘내가’라고 말한다	‘우리’라고 말한다
일이 성취될 수 있는 방법을 안다	일이 성취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네가 가라’고 말한다	‘함께 갑시다’라고 말한다
실패의 책임을 묻는다	실패를 고쳐준다

*자료출처: 존 맥스웰 (2003). 『리더십의 법칙』. 서울: 비전과 리더. *論者: 재구성.

위의 <표 2>에서 나타나 있듯이 보스는 명령과 통제의 방식으로 조직구성원들을 움직이는 반면에 리더는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조직구성원들을 독려하며, 자발적인 참여와 동기부여를 이끌어 내는 사람이다. 리더십 특성이론의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두 사람 이상이 활동하는 모든 곳에서 요구되는 보편적인 능력으로 평가되어지며, 이는 선천적으로 주어지기보다 후천적으로 학습을 통하여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은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할 수행을 위해서 영향을 주는 일련의 행동과정을 통해 발휘된다(Hughes, Ginnert & Curphy, 2002: 3-11).

그러므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할수행을 위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느냐가 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 Drucker는 진정한 리더는 부하들로부터 인기를 얻거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하들을 이끄는 사람이라고 하여 리더의 역할이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리더십 패러다임의 전환은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요소들도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되었다. Koestenbaum은 철학적인 관점에서 21세기 리더십에 필요한 핵심요인으로서 비전(Vision), 현실(reality), 용기(courage), 도덕성(ethics)을 제시하고 있다. 이 4 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때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였다(Koestenbaum, 2002). 비전은 전략적사고와 창의력 및 깊은 사색과 성찰을 통해 만들어 지는 것으로서 크게 보고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고, 현실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분석과 생존본능이 있어야 한다. 용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고, 도덕성은 진실을 바탕으로 하여 신뢰를 구축하면서 타인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미국의 경영협회에서 리더십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진 Lolin Woolfe는 “목표가 없는 리더들은 아무리 재능이 많이 있어도 인생에 실패하고 말았다”고 하였다(Lolin Woolfe, 최중욱 역, 2004). 그는 성경속의 수많은 리더들의 지혜를 비즈니스에 접목시키고 있으며, 성경에 나타나는 리더십의 사례를 집대성한 것으로 리더십의 좋은 본보기뿐만 아니라 나쁜 본보기의 역할도 살펴보면서 오늘날의 경영자들에게도 유용하고 통찰력 깊은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3 리더의 덕목(德目)

덕목(德目)이라 함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성과 품격을 지탱하여 주는 윤리적이고 인간의 중요한 도리(道理)이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기업에서 관공서나 국가기관이든지 어느 조직 단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와 구성원에게 있어서는 경력과 지식적인 기술과 숙련된 업무능력의 영향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리더의 덕목(德目; virtue)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인간의 덕목은 누구나 인간으로 태어 나서 타고난 천성을 가지고 있다. 덕목은 인간으로서의 공동생활과 사회생활을 함께 공유하며 소통하는 윤리적인 항목을 말하는 것이다, 인간은 동물과는 다르게 사회적인 동물로서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느 장소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타 동물들에 비해서 우수하기 때문에 적응력을 악용하여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어둡고 회색이 짙은 사회공동체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당면하고 있는 사회 현장의 현실은 매우 부정적이고 ‘묻지마’ 식의 충격적인 범죄가 종종 발생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논자는 덕목의 인격과 인성수양과 훈련을 통하여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인간의 덕목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높은 고상한 학문적인 수준에서 찾을 것이 아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통하여 인간과 인간과의 소통, 양보와 배려함, 설득이해 또는 감정조절을 통하여 합의점을 찾아가며 상호간의 협력을 구축함으로써 개인과 조직을 원활(圓滑)하고 융통성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개인의 품격과 조직구성원간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것이다.

IV.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리더의 덕목에 관한 유형

4.1 리더의 덕목으로서의 인내 (약 1:3-4, 5:7-11)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3절-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 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

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옳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7절-11절)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하였다. 유대교에게 종교적 박해를 받았는가 하면, 로마 제국에 복음이 전파되면서부터는 정치적 박해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면서 올바른 신앙과 삶에 대해 개인적인 갈등까지 느끼게 되었다. 이때 예수님의 형제이자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인내로 극복하여 승리하라고 권면하게 되었다. 그는 마치 농부가 파종을 하고 수확하기까지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며 기다리는 것처럼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모든 일은 얼마만큼의 인내심을 갖고 성실하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공동체의 모든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라고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Rousseau, Jean Jacques)는 인내를 강조하였다.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35세에 황제로 추대된 프랑스의 나폴레옹 1세는 “승리는 가장 많이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말했다. 인내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비롯하여 주변 환경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을 접하게 될 때가 종종 있게 된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불쾌하고 불미스러운 감정적인 경우가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자신의 마음을 평정시키고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인내력(忍耐力)이 필요하다. 당시 예루살렘교회의 지도자이며, 감독자 야고보(James)는 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서신을 보내면서 제일 먼저 인내(patience)를 온전히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다. 즉 인내하는 리더십을 갖추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내심은 누구에게나 쉽게 습득하는 것이 아니다. 야고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가져오게 되며, 인내를 온전히 성취하라(약 1:3-4)”고 권면하고 있다. ‘인내(忍耐)’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현재의 재난이나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쉽게 감정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다. 인내하기란 말처럼 쉽지가 않다. 기독교인들이 믿음생활을 함에 있어서 ‘오래 참음’은 참으로 중요하다. 야고보는 ‘인내’를 강조하고 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러한 인내를 소유한 인물들이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지루하게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날을 소망했고, 아브라함은 소망의 열매인 아들을 25년 동안 소망하면서 인내하였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속에서 인내했고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시험과 핍박 속에서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은 약속을 소망하면서 인내하였다. ‘바울(Paul)’은 달리기 선수처럼 달려가되 상 받을 것을 바라며 달려가라고 외쳤다(빌 3:14).

4.2 리더의 덕목으로서의 언어생활(약 1:19-21)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사람마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19절-2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 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 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서 3:1-8)

언어(言語)는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의 말로 만드시어 인간만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중국격언에 의하면, “말은 마음의 열쇠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레이는 “말은 마음의 초상이다” 말하고, 시러스는 “언어는 영혼의 거울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말은 사람의 마음, 행동, 영혼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은 말에서 힘을 얻어 격려와 위로의 말과 칭찬과 용기를 얻어 교훈을 삼고, 자신의 일생을 살아가게 된다. 인간은 말의 표현을 통하여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을 펼쳐나가고 있다. 말은 인간만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사아디 고레스탄 중에 “말이 있기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그러나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이 그대보다 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갈등의 분쟁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인 ‘언어(言語)’ 사용에 대한 교훈을 하기 위하여 본서를 통하여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다(1:19-20, 26; 2:14-16; 3:1-12, 14; 4:11, 13-17; 5:12). 야고보가 말(言)에 대하여 여러 차례 언급하는 이유는 공동체 구성원 중에 지혜롭게 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분열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 그들은 교사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다(3:1). 본문(약 3:1-12)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솔하게 선생이 되려고 나서는 일에 대해서 삼가야 할 것을 경고하면서, 언어 절제의 중요성과 혀의 특성과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혀를 제어하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악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였다.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혀(舌)’를 잘 사용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 특별히 야고보는 이상의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재갈’, ‘키’, ‘불’, ‘동물’, ‘쌈’, ‘나무의 열매’ 등을 비유로 들어 혀의 올바른 사용의 중요성을 다각도로 조명해 주고 있다. ‘혀’는 우리의 삶을 조절하는 데 열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혀’를 통하여 사용하는 언어는 사람의 삶을 일관성 있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야고보는 그들에게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말한다(3:2). 여기에서 ‘온전한 사람’이란 ‘죄(罪)’가 전혀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기보다 성숙한 사람을 가리킨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혀(舌)를 잘 사용하는 자이다.

반면에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않는 자이다(1:26). 야고보는 혀를 잘못 사용하면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라 파멸에 이르게 된다고 교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3:6).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혀를 잘 다스려 허탄한 것을 자랑하거나 상대방을 저주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사용한다(3:9). 세상에는 말에 대한 격언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 격언 중에도 가장 흔하게 많이 쓰이는 말은 “침묵은 금이다”라는 격언이 있다.

가능하면 말을 삼가 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말에 대해 실수가 많은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조직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직장에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정에서, 절친한 동료들 사이에서 심지어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 무엇 때문에 상처받게 되는가? 결국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된다. 뒤집어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주기 가장 좋은 도구가 언어 사용 때문이다. 성도의 교제 속에서 다툼과 분열은 언제나 언어의 사용인 말에서 나오는 것이다. 인간은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말하는 법을 잘 배워야 한다. 야고보는 대화의 기초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약 1:19)”고 하였다. 첫째, 듣기는 속히 해야 한다고 하였다. 상대방의 말을 빨리 들어라 이런 뜻은 아니고 적극적인 경청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열린 마음으로 잘 듣고자 하는 마음,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의하면 잘 말하는 비결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다. 얼마만큼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 3:1 원리를 말하고 있다. “세 개를 듣고 한 개만 이야기 하라”는 것이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데,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면 듣게 되어 있다. 둘째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게 된다. 신뢰하면 듣게 되어 있다. 셋째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을 잘 하거나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존경이요, 신뢰요, 인내요, 사랑인 것이다.

두 번째, ‘말하기는 더디 하며’ 이 말은 말을 느릿느릿 말하라는 뜻이 아니다. 생각하고 대답하라는 것이다. 상대방의 말을 그냥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을 ‘response’ 이라고 한다. 일단 ‘response’ 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하며, 듣고 생각한 후에 말하면 그것이 말을 잘 하는 것이다. 내 생각 속에서 한번 점검하고 말을 해야 한다. “준비된 말이 성공을 부른다”라고 한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는 말, 준비된 말을 하라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형제, 이웃, 친구, 동료들 간에 언어사용을 통하여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말(言)’이란 한마디로 그 사람 자체이다. 바로 말이란 나 자신이며, 미래를 향한 오늘 나의 확신이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도 바뀌게 된다. 그래서 말을 “내 인생을 방향 짓는 키로 기억하라(약 3: 4)”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4.3 리더의 지혜로운 덕목(약 3:13-18)

“너희 중에 지혜와 충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13-18)

일반적으로 야고보서는 ‘지혜의 책(a book of wisdom)’ 이라고 부른다. 지혜의 책인 야고보서에는 도덕적인 교훈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야고보서를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지혜의 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야고보서의 모든 단락이 지혜의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초기 기독교는 야고보서는 윤리를 말하는 책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를 주로 도덕적 권면

(moral exhortation)으로 생각하였다. 야고보는 본문(약 3: 17)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일곱 가지의 특성을 말씀하고 있다. 다음의<표 3>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일곱 가지 특성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표 3>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일곱 가지 특성

1	성결하고(Pure)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성실해야(integrity) 한다.
2	화평하고(peaceable)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사랑해야 할 뿐 아니라 평화를 널리 퍼지게 하는 삶을 추구해야 하며,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통하여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평화가 되어야 한다.
3	관용하고(considerate)	관용은 이기주의(self-seeking)와 반대되는 태도이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엄격하게 정의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정의와 자비를 조화시키는 태도를 말한다.
4	양순하며(willing to yield)	하늘의 지혜는 합리적이며 융통성이 있다. 그래서 기꺼이 귀 기울여 주고 변할 준비가 되어 있다.
5	공홀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용서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가 누군가의 허물일 때 기꺼이 용서해야 한다.
6	편견이 없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입견이 없이 한결같은 마음(single mind)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뜻이다.
7	거짓이 없나니(sincere)	헬라이어(anupokritos)로 이 단어는 ‘외식하지 않는’ 이란 뜻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을 진실하게(genuine) 한다.

*자료출처: 박대영(2012). 『야고보서』. 161-164. *論者: 채구성.

야고보가 편지를 쓴 당시의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었다. 박해 아래서 교회는 분열되었다. 거기에는 공식적인 목회자나 안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선생이 된 자들이 등장하여 지혜를 가졌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이 참 교사인지 거짓 교사인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마 7:15-23).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것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말씀의 영성에서 나오는 지혜는 삶에서의 행동과 동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지혜란 굉장히 폭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 속에는 지식도 기술도 함께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지혜에 대한 정의이다. ‘야고보서’에는 두 가지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다. 땅위에서 나오는 지혜와 위로(하늘)부터 나오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땅위의 지혜는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공홀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하였다. 진정한 지혜의 리더십은 세상적인 모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심과 야욕이 없는 청순한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리더십, 즉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결(聖潔)한 마음이다. 이스라엘의 지혜의 개념과 헬라적 지혜의 개념은 매우 다르다. 이스라엘적 지혜란 종교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헬라적 지혜란 철학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인간형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본문에 ‘지혜’란 말이 나오는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지혜의 정의가 각자 다르다. 지혜는 인간의 단순한 처세술(處世術)이나 상황(狀況)에 따라서 대처하는 순발력(瞬發力)이 아니다. 그리고 개인의 능력이나 지식, 교양, 경험, 구제, 자원봉사, 예절, 도덕, 윤리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히브리어 원전에서 명사로서 지혜를 말하는 ‘호크마’는 ‘굳게 잡다(hold fast)’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영민(intelligent)’ 또는 ‘신중함(discretion)’의 의미로도 포함되고 있다. 성경적 지혜관의 특징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인간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 그분과의 수직적 관계(vertical relationship)와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지음을 받은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올바른 수평적 관계(horizontal) 안에서만 비로소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지혜를 현실에 잘 적용시키는 방법으로서의 지혜의 실용적 측면에 성경은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성경에는 인간관계, 처세술, 언어생활, 근면과 절약, 사회적 존경을 받는 길, 통치자에 대한 자세와 자신이 지켜야 하는 도리와 의무 등이 실용적 분야에 관하여 언급을 하고 있다. 지혜는 구약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잠 9:10)”고 말씀하고 있다. 지혜를 신학화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며 지혜의 핵심을 “하나님 앞에 선 그 사람의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혜란 객관적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태도가 지혜이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여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의 내용이 영어로 “hearing heart”이었다(삼상 3:12). 듣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이 곧 지혜이다. 지혜는 객체가 아니다. 지혜는 곧 태도(attitude)이다.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보따리가 아니다. 듣는 태도, 듣는 자세가 지혜이다. 이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지혜는 날이 갈수록 쌓여지는 것이다. 야고보서는 정확하게 지혜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약 3:13).” 이 말의 의미는 참 지혜를 가진 자는 교만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지 않으며, 지혜는 온유함을 가지고 선행을 하게 되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 땅에서 나오는 인간의 지혜는 경쟁, 다툼, 전쟁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화평을 도모하게 된다.

4.4 리더의 덕목과 겸손(약 4:6)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렸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잠언 3:34)를 인용하여 본서(약 4:6)에서 신자의 겸손한 태도를 권면하고 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순종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신자의 겸손은 신론적(神論的)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겸손한 사람을 높이는 하나님 신학이 신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자의 겸손은 신론적 겸손이라고 할 수 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정욕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다. 겸손에는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할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며 세상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 중의 하나가 겸손이다. 사실 신앙 자체가 겸손이다 (오덕호, 2014: 221).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다고 하여 세상 사람들의 악한 유혹에도 마냥 겸손하게 순종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악한 유혹에는 단호하고 용감하게 대적해야 한다. 겸손은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큰 무기이다. 그리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자신은 피조물이라는 완전한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홍정길, 1995: 133-135). 그리고 겸손은 자신 스스로가 유약(柔弱)해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겸손은 보통 자신이 손해보고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신을 멸시하는 것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야고보서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다. 모세가 강할 수 있었던 것은 온유하고 겸손했기 때문이다.

성경에 나오는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 인간은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높아지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군림하기를 좋아한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서운 독재자가 자라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느니라(마 11:29)”고 말씀하셨다. 20세기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R. Niebuhr)’는 “교만 중에 영적 교만이 제일 크다”라고 말하고 있다.²⁾ 교만은 천사를 떨어뜨려서 마귀가 되게 하고, 겸손은 사람으로 천사가 되게 한다. 교만은 작은 마음이요, 겸손은 큰마음이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것은 자기의 부족과 허물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기 때문이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신앙의 교만인 것이다. 우리는 항상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찾기 전에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 ‘디엘 무디’ 목사는 기독교인의 성공 법칙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했다.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벧전 5:5)”고 말씀하고 있다.

4.5 리더의 덕목과 재물 관리(약 5:1-6)

“들으라 부한 자들이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야고보서 5장 1절-6절)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사는 경제적인 것이다. 경제 문제는 정치, 문화, 교육,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즉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예민한 문제는 돈 문제다. 경제적인 문제는 다른 모든 문제를 덮어 버릴 정도로 삶에 많은 영향을 준다. 그러나 이 재정적인 문제는 상당수 돈을 잘못 이해하여 잘못 벌고 잘못 관리하고 잘못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이다. 문제는 돈을

2)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 1892-1977)는 20세기 미국의 신학자, 윤리학자, 정치철학자이며, 미국의 뉴욕 유니언 신학교 교수였다.

어떻게 벌어들이느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다. 돈을 잘못 사용하여 문제가 되는 가정과 회사와 국가가 더 많다. 야고보는 재물을 축적하기만 하는 부자들에게 엄한 경고를 준다. 그들은 재물이 썩을 정도로, 의복을 좀먹을 정도로, 금전을 녹슬 정도로 쌓아두기만 했다(약 5: 2-3). 그들은 축적된 재물에 의지하여 사치하고 방종하며 마음을 살찌게 하고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약 5: 5-6). 부자들은 이렇게 재물을 축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밭에서 추수를 위해 일한 품꾼들에게는 제대로 샅을 주지 않았다(약 5:4). 이러한 상황에서 야고보는 재물을 쌓아두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품삯이 소리 지르며, 품꾼이 울부짖는다. 야고보는 지불되지 않은 샅의 외침과 품꾼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 왔다고 말한다(약 5:4). 예수님께서도 돈에 대해 많이 언급하셨다.

총 서른여덟 가지 비유 가운데 열여섯 가지가 돈과 재산 관리에 관한 것이다. 사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돈에 대해 많은 것을 말씀하셨다. 성경은 기도에 관한 교훈이나 믿음에 관한 교훈이 500절이 안 되는 것에 반해서, 돈과 재물에 대해서는 2,350절 이상 언급하고 있다(하워드 테이튼, 조용만 역, 2008: 10). 그러므로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 규모 있는 재물관리를 해야 한다. 성경에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여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라(살후 3:6-11)”는 말씀에서 개인이나 가정에서는 예산을 세우고 살아야 한다. 처음 초대교회에서는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으므로 하루 이틀 아무렇게나 되는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규모 없이 일하지 않고 되는대로 살아가는 것을 권면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대해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떠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아주 알뜰하게 살고 있으나, 혹자는 대책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다. 돈이 생기면 다 써버리고 없으면 찢찢매매 사는데, 이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이를 놓고 믿음이 있어서 되는대로 산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며, 방종인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부분 소득이 적어서라기보다는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저축하며 살아야 한다. 구약성경 잠언에 의하면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잠언 30:25).” 성경(LB)으로 읽으면 “The wise man saves for the future’ 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는 뜻이다. 저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다. 첫째,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며, 둘째, 충동구매를 억제하여 건전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이고, 셋째,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야고보서에서 부자가 책망을 받고 심판을 자초하는 것은 바로 재물을 쌓아 놓았기 때문이라고 하신다. 고대 중동지역에서의 경제생활은 재물이 현찰이 아니었으며 금은보화와 곡식과 옷감이 재산이었다. 곡식은 쌓아두면 썩고, 옷은 좀이 난다. 그리고 금은보화도 녹이 슬도록 모아 놓는 것을 하나님은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하신다. 즉 모아 놓으면 썩는다고 하신다. 모아 놓는 것, 쌓아 놓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하신다. 앞에서 언급한 선한 관리자로서 저축이 아니고 모아 놓기 위해 즉 쌓아두는 것이 목적인 저축은 악이라고 하신다. 물질은 쌓

아두기 위함이 아니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우리가 살 때 필요한 것을 공급 받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그리고 죽을 때 다 반납하고 가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죽은 줄로 알 것이니라(딤후 6:7).” 그러므로 쌓아 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쌓아놓고 움켜쥐고 있는 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일인 것이다. 내가 돈을 벌었으므로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함께 나누며 함께 공유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의미이다. 내게 돈을 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은 바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과 여러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청지기로서, 맡아 관리하는 봉사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가? 선한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며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딤후 6:18-19).” 소망을 물질에 두지 말며 하나님께 두고, 선한 사업에 풍부한 자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다. 선한 사업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일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 4:17-20).” 즉 선교 헌금이 향기로운 제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러므로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는 물질로 헌신해야 한다.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수입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개인적으로 부요로운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일이 없는 가난하고 벌거벗은 자들로서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고 책망하였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구제하며 함께 나눔의 복지 의식을 가져야 한다.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퍅히 하지 말고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명기 15:7-10)”고 하였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마 6:3-4).”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다. 구약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한 이웃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생각하고 나누며 살아가라고 하셨다. 농사를 지어도 다 거둬들여서는 안 되고,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둬야 했다(레 19:9-10; 23:22). 추수를 하거나 양털을 깎을 때에는 모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하며 거둬들인 것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셨다. 성경은 결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정죄 하지 않지만, 왜 물질을 얻으려고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물질을 얻는가에 대하여 묻고 있다. 왜? 물질을 모으는가에 대한 이유가 바로 되지 않으면, 그 방법이 잘못된 것이면, 그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된다. 돈을 잘 관리하는데 있어서 제일 먼저 돈을 버는 방법이 중요하다. 돈을 잘 버는 방법은 첫째가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벌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착취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일확천금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허황된 방법으로 벌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결국 가난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한다. 그리고 돈을 벌면서 건강이나 가족이 희생되어서도 안 되고, 내 영적 생활이 침체되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 현대인은 모두 돈 시험을 겪는다. 돈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주제가 되기 때문이다. 돈은 가치관의 반영이다. 성경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사실 대다수의 성도가 두 주인을 적당히 섬기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마 6:24)고 단언하신다. “신앙은 물질과 깊은 관계가 있다(손경구, 2012: 53-54).”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과 경쟁한 거짓 신은 부와 돈의 신인 맘몬(Mammon)이다. 인간이 돈 문제에서 무력한 이유는 돈에는 신적인 위력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돈에게는 인간을 조종하는 힘이 있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반응이 있다. 오늘 수많은 사람이 돈의 위력 앞에 무릎을 꿇고 돈이 주는 거짓 평안을 누리려 한다. 마틴 루터(M. Luther)는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째, 가슴의 회심, 둘째, 정신의 회심, 셋째, 돈 지갑의 회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생활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 성경 곳곳에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다. 우리는 돈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 성경은 우리가 돈에 대해 통달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가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리스도인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다스리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학습하여야 한다.

V. 결론 및 시사점

인생을 살피고 바라보는 관점에는 세 가지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쾌락주의 사고가 있다. 인생은 짧고 죽으면 헛되다. 그러므로 인생의 삶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서 인생을 즐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유물론자들이다. 세월은 빠르고 인생은 고해와 같다는 사고이다. 모든 욕심을 생활 현장에서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무의미한 생활 속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의미를 찾고자 하는 불교사상, 스토아 철학자와 같이 현실에서 도피하여 고고하게 살려고 하는 소극적 안목을 가진 자가 있다. 셋째는, 세월은 빠르고 인생은 나그네(人生過客)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오늘의 육체의 삶은 짧은 인생에 불과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면 인간의 생명은 영원히 살 수 있고,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진리 속에서 절대자 하나님과 상대자 인간의 관계를 연관시켜 육체와 영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한 순간과 영혼이라는 상대적 관계로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기독교철학과 기독교 신앙의 입장이 있다.

야고보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 야고보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지배하며 행위하게 하는 ‘사랑’의 실천적인 삶이 있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믿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헛것인 것이다. 시드니 케이브(Sydney Cave, 1987)는 “신약성경 중에서 야고보서만큼 전적으로 윤리적인 책은 없다”라고 야고보서를 가장 윤리적인 책으로 보았다. 물론, 야고보서의 윤리적 가르침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많은 자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적 교훈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적 가르침은 바로 구약성경의 윤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야고보서의 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와 동떨어진 별개의 윤리가 결코 아니

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윤리인 하나님에 대한 윤리, 사람에게 대한 윤리 위에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윤리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일반사람들에게 윤리가 없이 올바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듯 교회에서도 윤리의 바른 가르침이 없이는 올바른 성도가 나올 수가 없다. 기독교의 신앙과 윤리의 확립만이 앞으로 기독교가 날로 세속화되어 가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본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야고보의 윤리적 교훈을 오늘날 우리는 깊이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행함이 있는 성도, 행함이 있는 목회자, 행함이 있는 교회, 행함이 있는 기독교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약 2:26)고 하였다.

지금까지 논자는 야고보서를 통하여 리더가 윤리적인 인성과 기본적인 덕목과 품격에 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현대조직을 잘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하여 수많은 조직적인 제도와 규범을 실증조사를 통하여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성서에 나타나는 리더십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였을 것이지만, 실제로 실천에 옮긴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과 함께 하는 리더십유형의 요인을 고찰하면서 다섯 가지의 리더의 덕목을 설정하였다. 야고보는 예수께서 가르친 것과 같이 ①인내 ②언어사용 ③지혜 ④겸손 ⑤재물관리를 통하여 리더의 덕목과 능력을 갖추라고 가르친다. 인간이 함께 하는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 리더십의 역량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단순한 거래적 리더십과는 달리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구성원들의 조직변화는 쉽지가 않다.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실천적인 행함에 관한 리더십은 기독교의 공동체와 성도가 받아야 할 교훈임은 물론이며, 또한 종교적인 신앙의 차원을 초월하여 일반 사회조직 공동체에 적용함으로써 일상적인 사회적 상식에서도 공감이 가는 주제임을 밝히면서 리더십의 근본 핵심역량을 논하였다.

참고문헌

- 계재광 (2010). “유교문화가 한국교회 리더십 형성에 미친 영향.” 『신학과 실천』 . 22. 77-106.
- 그랜트 오스본 저, 박대영 역 (2012). 『LAB 주석 시리즈/야고보서』 .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 김달홍 (2014). “야고보와 바울의 믿음과 행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남신학대학교.
- 김성열 (1982). “바울과 야고보의 믿음이해에 관한 조화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
- 김요섭 (1995). “야고보서에 나타난 야고보의 율법이해.”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김우진 (2014). “예루살렘공의회를 통해 살펴본 초대교회의 율법에 대한 다양한 견해.”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김홍현 (1994). “야고보서 문서 성격 규명을 위한 소고.”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남봉현 (1995). “지혜로운 인생경영.” 『활 천』 . 8, 30-35.
- 로린 울프 저, 최중욱 역 (2004). 『위대한 리더십의 최강자들』 . 서울: 영진닷컴.
- 문병하 (2010). “크리스천 리더십으로서의 멘토링에 대한 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 68.
- 배종열 (2007). “야고보서 구성.” 『신약연구』 . 6(1), 123-146.
- 손경구 (2012). 『돈과 영적성숙』 . 서울: 두란노서원.
- 신상래 (2010). 『하나님 경제학』 . 서울: 평단문화사.
- 오덕호 (2014). 『야고보서를 읽읍시다』 . 서울: 쿰란출판사.
- 윌리엄 커 (1993). 『성서핸드북』 . 서울: 도서출판 동서남북.
- 유상현 (1996). 『사도행전 연구』 .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이상훈 (1994). “성격이 급한 야고보.” 『활 천』 . 6, 57-62.
- 이승구 (2012). “칭의에 대한 야고보와 바울의 가르침에의 관계.” 『신학정론』 . 30(1) 141-165.
- 이요섭 (2008). “크리스천 리더십에 관한 고찰: 기독교경영학자의 견해.” 『신학과 실천』 . 14. 167-192.
- 이준호 (2011). “야고보서에 나타난 성화.” 『신약연구』 . 10(4). 1009-1032.
- 임병진 (2016). “성경에 나타난 말의 힘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 14(1) 19-32.
- 전영수 (2007). “목회자의 섬기는 지도력이 신도의 신앙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덕상 (1996). “야고보서의 윤리적 특징.” 석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교.
- 조병남 (2013). “세례요한의 리더십 연구.” 『신학과 실천』 . 483-517.
- 조병수 (2012). “야고보서의 신론윤리.” 『신학정론』 . 30(2) 545-570.
- 조성호 (2012). “리더십에 대한 실천신학적 제언.” 『신학과 실천』 . 31. 67-98.
- 존 맥스웰 (2003). 『리더십의 법칙』 . 서울: 비전과 리더
- 최원탁 (2012). 『이야기의 힘』 .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최창원 (2012). “말의 성찰을 통한 삶의 방식과 그 의미.” 『현대소설연구』 , 49(10), 453-478.
- 하워드 데이튼, 조용만 역 (2008). 『돈키호테, 재정 관리의 달인이 되다』 . 서울: 두란노.
- 한금석 (1990). 『실천적 신앙』 . 서울: 성광문화사.
- 홍정길 (1995). 『야고보서 강해』 . 서울: 크리스찬 서적.
- 황병준 (1989). “미래교회와 평신도 리더십.” 『신학과 실천』 . 13. 151-180.
- 황인태 (2014). “담임목사의 리더십유형이 차세대 목회리더들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나사렛대학교.
- 홍성국 (1999). “야고보 공동체의 윤리적 상황과 현대적 의미” 『성경과 신학』 . 25. 78-105.
- Adamson, James B. (1976). *The Epistle of James*. Grans Rapids: Eerdmans.
- Baker, W. R. (2002). “Christology in the Epistle of James.” *Evangelical Quarterly* 74. 51.
- Barclay, W., 문경식 역(1976). 『야고보서·베드로서』 . 14. 서울: 기독교문사.

- Bernheim, P. A. (1977). *James, Brother of Jesus*. London: SCM Press Ltd.
- Billy, E. S. (1986). "The Epistle of James: An Introduction." *A Journal of Theology & Ministry* 34.
- Capowski, G. (1994). "Anatomy of a Leader: Where are the Leaders of Tomorrow?" *Management Reviews*.
- Clinton, J. R., 이순정 역. (2008). 『영적 지도자 만들기』. 서울: 베다니출판사.
- Clinton, R. (1988). *The Making of a Leader*. Colorado Springs: NavPress.
- Cranfield, C. E. (1965). "The Message of James." *SJT* 18. 338-345.
- Daniel, G. & A., 장석훈 역 (2003). 『감성의 리더십』. 서울: 청림출판.
- D. J. Moo (1985). *The Letter of James*. (Leicester: Inter-Varsity, 99)
- Dauids, P. H. (1982). *The Epistle of Jame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Eerdmans.
- David R. Maxwell (2007). "Justified by Works and Not by Faith Alone: Reconciling Paul & James", *Concordia Journal* 33.
- Deems, C. F. (1988). *The Gospel of Common Sence: The Cononical Epistle of James*. New York: Wilbur B. Ketcham.
- Dibelius, M. (1981). *James: A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Jam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 Drucker, P. (2011). "What makes an Effective in HBR'S 10 MUST Reads an Leadership." *Harvard Business Press Books*.
- _____. *Leadership in Organization*. New Jersey: Prentice-Hall, 5th.
- Dubrin, A. J. (2001). *Leadership: Research Findings. Practice and Skills*. Boston New York: Houghton Mifflin Company. 332-335.
- Eisenman, R. (1997). *James the brother of Jesus*. New York: Penguin Books.
- G. Capowski (1994). "Anatomy of a Leader: Where are the Leaders of Tomorrow?"
- Goleman, D. (2002). *Primal Leadership*.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Greenleaf, R. K. (2002). *Servant Leadership: A Journey into the Nature of Legitimate Power and Greatness*. New York: Mahwah, N. J.
- Hughes, R. L., Ginnert, R. C. & Curphy, G. J. (2002). *Leadership, Enhanaing the Lessons of Experience*. McGraw-Hill Higher Irwin. 3-11.
- James, C. Hunter (2004). *The World's Most Powerful Leadership Prenciple*. (New York, NY: Crown Business)
- J. B. Mayor. (1897). *The Epistle of St. James*. (London: Macmillan)
- J. G. Lodge (1981). "James and Paul at Cross-Purposes? James 2.22". *Biblica* 62. 212.
- J. H. Ropes (1978). *The Epistle of St. James*. Edinburgh: T. & T. Clark.
- Jones, R. B. (1961). *The Epistles of James, Jude and John*. Michigan: B. B. H.
- Kistemaker, S. J. (1986). *Exposition of the Epistle of James and the Epistles of Joh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 Koestenbaum, P. (2002). *Leadership-The Inner Side of Greatness*. Jossey-Bass.
- Laws, S. (1980). *A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James*. London: Adam & Charles Black.
- Leigton Ford (1991). *Transforming Leadership*. IL: Inter Varsity Press.
- Manz, C. C. & Sims, H. P. (2001). *The New Super Leadership, Leading Others to Lead themselves*. Berrett-Koehler Publishing. Inc. San Francisco.
- Martin, R. (1988). *Word Biblical Commentary*. TX: Word Books Publisher.

- Maxwell, D. R. (2007). "Justified by Works and Not by Faith Alone: Reconciling Paul & James." *Concordia Journal* 33.
- Maynard-Reid, P. V. (1987). *Poverty and Wealth in James*. Maryknoll. New York: Orbis.
- Mayor, J. B. (1990). *The Epistle of James*.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 M. H. Shepherd (1956). "The Epistle of James and the Gosple of Matthew". *JBL* 75. 40-51.
- Mitton, C. L. (1966). *The Epistle of James*. Grand Rapids: Eerdmans.
- Moo, D. J. (1985). *The Letter of James*. Leicester: Inter-Varsity.
- Northouse, P. G. (2013). *Leadership*.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Inc.
- Robert Clinton (1988). *The Making of a Leader*, (Colorado Springs: NavPress)
- Ropes, J. H. (1978). *The Epistle of St. James*. Edinburgh.
- Sidebottom, E. M. (1982). *Jude and 2 Peter*. Grand Rapids and London.
- Tasker, R. V. (1980). *The General Epistle of James*. Michigan: Wm. B.E.P.C.
- T. B. Cargal (1993). *Restoring the Diaspora: Discursive Structure and Purpose in the Epistle of James*. (Atlanta: Scholars). 104.
- Tollefson, K. D. (1997). "The Epistle of James as Dialectical Discourse." *Biblical Theology Bulletin*. 21. 62-69.
- William, R. B. (2002). "Christology in the Epistle of James." *Evangelical Quarterly*.
- Woolfe, L., 최종욱 역 (2004). 『위대한 리더십의 최강자들』. 서울: 영진닷컴.
- Yukl, G. (2001). *Leadership in Organization*. Prentice-Hall. New Jersey.